

니켈 등 금속 ETN 수익률 훨훨… ‘대신 니켈선물’ 1위

(상장지수증권)

印尼 니켈광석 수출 금지 여파
금속 관련 ETN, 국내 상위권
대신 니켈선물, 수익률 157.24%

올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
금, 은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니켈
값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
속 ETN(상장지수증권)의 수익률이 오
름세를 보이고 있다.

특히 금속 관련 ETN이 국내 ETN
수익률 상위권에 다수 포진해 있는 것
으로 나타났다.

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
시장에 상장된 ETN 가운데 니켈 등 금
속에 투자하는 ETN 상품 수익률이 눈
에 띄게 상승했다. 니켈의 최대 수출국
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말부터 니켈 광
석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
이다. 여기에 필리핀 최대 니켈 광산의
가동 중단까지 겹치면서 니켈 가격이 5
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.

대표적으로 ‘대신 2X 니켈선물 ETN’은 지난해 말 대비 수익률이 157.24%로 1위를 기록했다. 이 종목은 런던금속거래소(LME)에 상장된 니켈

〈올해 수익률 상위 10개 ETN 종목〉

순위	종목명	작년 말 대비 수익률(%)
1	대신 2X 니켈선물 ETN(H)	157.24
2	삼성 레버리지 China A50 선물 ETN(H)	73.66
3	대신 니켈선물 ETN(H)	65.11
4	대신 철광석 선물 ETN(H)	61.44
5	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	54.86
6	삼성 레버리지 은 선물 ETN(H)	51.81
7	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TN(H)	51.42
8	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	50.53
9	QV 레버리지 S&P500 ETN	49.31
10	미래에셋 중국 심천 100 ETN	49.26

/자료=한국거래소

선물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주종하는 상
품이다. 올 초(1월2일 종가기준) 7580원
에 불과하던 상품 가격은 현재 1만9565
원에 거래되고 있다. 지난 2일 인도네시
아의 수출금지가 발표되면서 상품가격
은 전일 대비 4930원이나 오른 2만2365
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.

전문가들은 향후 니켈 가격 강세 기

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하이투자증권 김윤상 연구원은 “중
국의 니켈 수요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
있다”며 “여기에 재고 비축 수요가 더해
지면 니켈 가격은 더 강하게 지지될 것”
이라고 내다봤다.

대신증권 김소현 연구원도 “인도네
시아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현재 니

켈 공급차질량이 단기간 내에 보완되기
어려운 환경”이라며 “현재 니켈 가격은
4%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”고 설명했
다.

미·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상황
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금값에 이어
은값도 꾸준히 오름세다. 유가증권시장
에 상장된 ETN 상품 가운데 ‘신한 레버
리지 금 선물 ETN’은 지난해 말 대비
50.53%, ‘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TN’은
51.42%, ‘삼성 레버리지 은 선물 ETN’은
51.81%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
다.

단, 금·은 가격에 수익률이 좌우되는
ETN 상품 수익률이 앞으로도 오를지는
의문이다.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기
대감과 노딜 브렉시트(영국의 유럽연
합 탈퇴) 우려 완화로 미국 증시가 급등
하자 국제 금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
이다.

은도 마찬가지다. 지난달부터 금 가
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른 은
은 금보다 변동성이 더 높은 투자상품
이다. 즉 상승기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
지만 하락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
있다는 분석이다.

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“변동성 측
면에서는 금이 안전자산은 아니다”면서
“하지만 은의 변동성은 금보다 2배 더
크다”고 설명했다.

한편 올해 전체 ETN의 평균 수익률은
3.05%로 집계됐다.

유형별로 보면 국내 주식형 ETN의
수익률은 평균 1.70%로 코스피 수익률
(-1.78%)보다 훨씬 높았다.

다만 작년 돌풍을 일으킨 코스피 양
매도 ETN은 수익률이 -3.72%로 부진
했다. 코스피 양매도 ETN은 코스피
200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경우 이
익률 얻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올해는
극심한 증시 변동성 때문에 손실을 내고
있다. 코스피 양매도 ETN의 부진 등으로
올해 전체 ETN 일평균 거래금액도 218억원
으로 작년(422억원)보다 48.3% 줄었다.

한국거래소 관계자는 “발행사들이
유동성 공급자(LP)로서 작년에는 시장
확대를 위해 호가를 좀처럼 제시하다
가 올해는 수익성에 치중하면서 호가
스프레드를 벌린 것도 거래대금 감소에
영향을 미친 것 같다”고 설명했다.

/김유진 기자 ujin6326@metroseoul.co.kr

충북 청주 신라타운 재건축… 748세대 공급

구도심 율량동 29층 최고층 아파트
충북상업정보고·청주중앙여중 위치

충북 청주의 구도심 율량동에 29층
짜리 최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. 율량
동에서 5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.

금호산업은 이달 중 충북 청주시 율
량동 신라타운을 재건축하는 ‘율량 금
호어울림 센트로’를 분양한다고 8일 밝
혔다.

‘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’는 지하 2
층, 지상 최고 29층, 6개동 규모다. 전용
면적 59~84㎡, 총 748가구가 들어선다.
이 가운데 45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.

단지가 들어서는 옛 신라타운 부지는
율량동 도심 입지로 생활 편의시설이
풍부한 편이다. 교육환경도 좋다. 단지
옆에 충북상업정보고와 청주중앙여자
중이 위치해 있고, 도보 5분거리에는 덕
성초가 위치해 있다. 새터초, 율량중,



금호산업 청주 ‘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’ 투시도.

청주여고, 청주대성고, 청주대, 충북
대, 서원대, 청주교육대 등 다수의 교육
시설이 단지에서 반경 1km이내에 밀집돼
있다.

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
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. 구도심인 율
량동에서 가장 높은 29층 최고층으로 조

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다.

지상에 차가 없는 에코특화 아파트로
조성된다. 단지 내에는 이국적인 조형물
과 다양한 식재들로 꾸민 중앙광장과 입
주민들이 채소나 디자인 농작물을 재배할
수 있는 가족텃밭이 조성될 계획이다.

/이규성 기자

증시 상승에 코스닥레버리지 12.52%

주간펀드동향

국 지수에 영향을 끼쳤다.

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4.30% 올
랐다. 순자산은 2조1420억원 늘었지만
수익률 회복에 따른 환매심리가 작용하
며 1745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. 해외
주식형펀드는 1.67% 올랐다. 해외주식
형 역시 73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으나
순자산은 3290억원 늘었다.

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증시 반등
에 따라 레버리지펀드가 우수한 성과를
기록했다.

그 중 ‘NH-아문디(Amundi)코스
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[주식-파
생형]ClassA’ 펀드가 12.52%의 수익
률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. 해
외주식형은 중국주식형의 펀드들이 우
수한 수익률을 보인 가운데, ‘미래에셋
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자
투자신탁[주식-파생재간접형]종류A-E’
펀드가 8.29%의 수익률로 수위를 차

지했다. /손엄지 기자 sonumji301@
etnews.com

한화건설, 전주에코시티내 45층 랜드마크 복합단지 분양

한화건설(대표이사 최광호)이 오는
10월 초 전주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태도
시인 전주에코시티에 복합단지 ‘포레나
전주 에코시티’를 분양한다.

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포레나 전주
에코시티는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
지 1·2블록(덕진구 송천동2가 1313)에
위치하며, 지하 5층~지상 45층, 총 6개
동(아파트 4개, 오피스텔 2개)의 복합단
지다.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~172㎡
아파트 614가구와 전용 84㎡ 단일면적
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실이 있다. 타입
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▲84㎡ 210가구



한화건설 ‘포레나 전주 에코시티’ 조감도.

▲116㎡A 119가구 ▲116㎡B 38가구
▲120㎡ 122가구 ▲130㎡ 121가구 ▲
163~172㎡ 4가구며, 오피스텔은 ▲84
㎡A 127실 ▲84㎡B 76실로 구성된다.

특히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
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주택 소
유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, 분양
권 전매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을
끌 전망이다.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
전용면적 1만2614㎡ 규모의 상업시설
도 함께 분양에 나선다.

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(G1)과 지
상 1층으로 구성되며, 약 170m 길이의
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보행자의 접근
성이 좋은 편이다. 라 단지 우측에 에코
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되어 있어
유동수요가 기대된다. /이규성 기자 peace@

“아파트 분양 시장, 추석 쉬고 만나요”

분양캘린더

주택은 개관은 없다.

대광건설은 오는 10일 대전광역시 유
성구 봉산동 777 일원에 들어서는 ‘유성
대광로제비양’ 1순위 청약을 받는다.
지하 3층~지상 25층, 10개동, 전용면적
84㎡ 단일면적이다. 총 816가구 가운데
46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. 포스코건
설은 오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
동 857번지 일대에 염주주공아파트를
재건축해 짓는 ‘염주 더샵 센트럴파크’
1순위 청약을 받는다. 지하 3층~지상
최고 30층, 18개동 규모다.

/박승덕 기자 bluesky3@